

최고령 합격기  
[2012년(제54회) 사법시험 최고령 합격]

## 합격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 이루어진다



박 동 훈

- 광주 인성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 최고령 합격

### I. 들어가며

(1) 마지막 관문인 면접시험이 끝나고 기다리던 최종합격의 영광을 맞이한 지금 합격수기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저는 오류와 실수로 점철된 지난 20여년의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돌이켜보면 남들 앞에 자랑스럽게 내세울 것은 없고 오히려 부족하기만 합니다만 갈수록 사법시험이 어려운 관문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저의 보잘것없는 경험이 작은 도움이라도 될까 용기를 내어 제 수험 경험에 대하여 몇 가지 적습니다.

(2) 최연소·최고령 - 저는 이 단어가 이 현 사법시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를 보고 주변의 지인들이 최고령 합격자 중 최연소 합격자! 만 42세의 최고령 합격자라니!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소위 노장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최근 사법시험에 합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합격인원도 줄어들었고 시험경향도 노장들에게 불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능 세대가 아니라면 더욱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올해는 작년과 비교하여 40세 이상 합격자가 절반에 불과합니다. 해가 지날수록 합격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상황이 나아지진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이 글을 통해 특히 노장 수험생들에게 용기를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 II. 사법시험에 도전하기 이전

(1) 저는 1970년 전남 함평에서 출생

하였고 고향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쳤고 광주에서 광주 인성고등학교를 12회로 졸업하고 다시 서울 유학길에 올라 1988년 3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온 국민이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던 그 시절 88꿈나무 세대로 대학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저에게 다가온 사회 현실은 꿈처럼 달콤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이어진 격동기 속에 휩쓸려 사회 현실에 눈뜨게 되었고 대학 새내기 시절부터 졸업 때까지 학생운동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대생이었지만 실제로는 법대 수업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법시험과는 거리가 먼 학생이 되었습니다.

(2)1990년대 초반에는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독일이 통일되는 등 국제적으로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연속해서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념적인 혼란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1992년 4월 총선에서 민중당 후보 지원활동을 마지막으로 학생운동을 정리하고 군 입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 군에서 제대하고 사법시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법대에 입학한지 10년이 다 되가는 시점에 사법시험에 첫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 III. 수험생활에서 느낀 몇 가지

(1) 수험생활에서 여러 가지가 문제되었으나 제가 부족했고 따라서 주로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점은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법적 사고를 형성하는 것, 인내

와 끈기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는 것, 제시된 문제에 대하여 오로지 답안지를 통해 표현하므로 답안 작성을 철저히 수련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 저는 대학생활을 강의실이나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보낸 것이 아니었기에 사법시험에 도전할 당시 법적 지식은 전무하였고 legal mind조차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장수생의 자질(?)이 보였었는데 아쉽게도 이부분을 빨리 깨닫지 못하여 수험 기간이 매우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법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법적 사고를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가인데 나는 법대생이므로 법적 사고를 잘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일찍 깨닫게 되었더라면 사고방식을 개선하여 수험기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을 터인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아쉽습니다.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법률적으로 포섭하여 사안을 해결해내는 능력이 합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2차 시험문제도 역시 이것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법적 사고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3) 인내와 끈기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에는 2차 시험을 6번 응시하였는데 1999년, 2000년, 2007년, 2008년, 2011년, 2012년입니다. 시험과정은 연속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고 방황하였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중간에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였고 여러 조건이 맞지 않아 공부 가 단절되기도 하였지만 나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한계들을 극복하느냐 마느냐는 결국은 자기 의지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인내와 끈기로 초지 일관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며 이 점 또한 강조하고 싶습니다.

(4) 자신의 약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2000년과 2008년의 시험은 민법에서 과락이었습니다. 1차나 2차에서 항상 저득점으로 문제가 되었던 과목이지만 적극적으로 약점을 극복하기보다는 두려움에 피하게 되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에서는 민법에 대해 저의 각오가 전과 달랐습니다. 민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시험기간 내내 민법 사례풀이에 몰두하였고 민법에서 고득점은 아니지만 나름 안정적인 점수를 획득하여 합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약점이 있기 마련이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합격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5) 저는 답안작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저의 수험기간은 답안지와 싸움, 글씨와의 싸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법시험은 답안지로 모든 것을 표현해야 하는 시험이기에 답안작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과거 시험 경험에서 저는 답안작성 연습이 허술하여 결

국 불합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느꼈고 워낙 악필이었던지라 글씨 교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학원 위주의 학습과정에서 1순환부터 3순환까지 거의 빠짐없이 답안작성을 하여 답안작성에 대한 두려움을 없앴고 수험기간 내내 날마다 30분 이상 글씨 연습을 하였습니다. 실제 답안 작성에 있어서는 내용적 측면에서 논리적 흐름을 유지하는 것과 문제를 잘 읽고 출제자가 원하는 바를 서술한다는 것이었고 형식적 측면에서 학원에서 나눠주는 고득점 답안의 형식들을 많이 차용하였습니다.

#### IV. 제54회 사법시험 준비과정

##### 1. 제1차 시험 준비과정

수험기간이 길어서 공부량은 좀 되는 거 같은데 막상 시험에서 답을 고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차 공부는 요약 반복 정리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교재도 양이 적은 것을 선택하여 반복하여 암기하는 방법을 취하였습니다. 특히 2007년 8지선다형이 도입된 이후 1차 시험은 정확한 지식의 습득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일독하고 즉시 정답을 골라야 하는 현 시스템하에서는 정확한 지식이 아니면 대처할 수 없습니다. 요약 반복하여 확실하게 자기 지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무리 일주일 전략은 빠르게 교재를 넘기면서 공부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인데 특히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빠지는 부분이 없이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면 시험기간 전 과정이 이 일주일 준비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택과목

의 경우 저는 법철학을 선택하였습니다. 선택과목은 당락에 크게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몇 년간 공부 과정에서 나름의 교재와 학습방법이 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회독 정도 공부하였던 것 같습니다. 가을쯤에 3일정도, 1월말에 하루, 그리고 시험 전날 2-3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 2. 제2차 시험 순환별 준비과정

예비순환은 동차합격을 목표로 사례집의 쟁점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과거 2차의 경험이 있었기에 마음을 굳게 먹고 도전하였으나 달라진 수험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비록 동차합격에 실패하였지만 이 때 공부한 것이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1순환은 주로 인터넷 동영상 강의들을 들으면서 기본서를 정리하고 사례는 강의에서 다루는 만큼만 공부하였습니다. 스터디는 하지 않았고 혼자서 독서실에서 하는 공부였지만 의욕이 넘쳐나서 공부량이 많은 편이었고 기초를 잘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민법 사례를 하루에 2-3개 풀었습니다.

2순환은 학원을 다니면서 시험보고 강의를 듣는 일정을 잘 따라한 것 같습니다. 2순환 학습은 답안작성에 제일 큰 의미를 부여하였고 답안작성을 잘하기 위하여 예습위주로 실천처럼 시험을 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시험 후 복습 과정에서 사례풀이, 주요 쟁점정리와 단권화, 암기를 하였습니다. 이 기간에도 민법 사례를 하루에 2-3개 풀었습니다. 시험에 불합격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

만 민법을 포함한 기본 삼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3순환은 학원에서 7과목 시험을 치렀는데 2순환에 만들어진 단권화 교재를 가지고 예습을 중심으로 시험보는 것에 더욱 집중하였고 시험 후 보완하고 암기를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학원 강사님들의 53회 대비 모의고사와 54회 대비 모의고사 문제를 쟁점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양이지만 주요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실제 시간 소모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민법 사례를 따로 시간을 내어 풀었습니다.

4순환 이후로는 4-2-1 시간이 안 나와서 각 과목 사정에 따라 시간을 조절하였고 단권화 교재를 암기하는 데 주력하고 최신 쟁점위주의 4순환 모의고사도 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4순환은 학원을 다니지 않고 독서실에서 최종 정리를 하였습니다. 많지 않은 시간이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기본서를 최종적으로 스킵하였고 모의고사 문제도 목차잡기 정도로 검토하였습니다. 답안지는 초반에 2-3일에 한장 정도 쓰다가 3주 정도 남기고는 쓰지 않았습니다.

## V. 마치며

(1) 10년간의 사법시험 준비 과정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으며 제가 실패로 고통스러워 할 때 함께 고통을 나누며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던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 직장 생활과 수험생 뒷바라지를 병행하며 힘든 시간을 잘 버텨준 사랑하는 아내, 저의 합격을 기

원하며 항상 응원해주시고 합격의 순간에 누구보다 먼저 축하해주시던 서울대 법대 노동법연구회와 편집부 Fides의 동료, 선배님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2) 비록 낮은 나이에 합격하게 되었으나 그 동안의 실패 경험을 소중한 자산으로 삼고 매사에 더욱 겸손하고 정진하는 자세로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진출하려 합니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두려움을 뒤로 하고 오랫동안 꿈

꾸어 온 길에 대한 설렘과 희망에 용기를 내어봅니다.

(3) 저의 두서없는 경험담이 사법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쉬지 않고 동기 부여하시고 자신을 채찍질하시어 다가오는 시험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합격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법조인으로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